

GS칼텍스 “석유제품 가격놀이”

5일 사이 인상·인하 반복 ... 원가 변동요인 감안한 가격 조정?

GS칼텍스는 석유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가격조정을 시행함에 따라 6월1일부터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GS칼텍스는 5월18일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되지 않은 5월25일 휘발유 가격을 1320원으로 10원 인하했지만, 5일도 안되는 시점인 6월1일 다시 6원을 인상했다.

고유가 현상과 원가요인을 감안한 가격조정으로 이해되지만 석유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인상은 GS칼텍스가 지나치게 이윤 추구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지적되고 있다.

또 고유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경기침체 및 달러약세가 악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GS칼텍스는 6월1일 석유제품 가격을 휘발유는 1320원에서 1326원으로 6원, 실내등유는 765원에서 770원으로 5원, 보일러등유 757에서 762원으로 5원, 경유는 969원에서 986원으로 가장 많은 17원 인상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국제시장에서의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변화 등 원가 변동요인을 감안해 가격조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SK는 6주째 가격인하를 이어오고 있다. <김 민 기자>

<화학저널 2005/06/02>